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7)시흥초등학교

꽃자왈 생명체 이야기로 호기심 자극

숲길 걸으며 나무 만지고
솔방울 던지며 소원 빌어
"밖에 나와 자연과 함께 해
선생님 말씀 머리에 쪽쪽"



아이들이 솔방울 사이에 팔배나무 열매를 넣어 만든 새막이를 걸어주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숲학교를 통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와 함께 휴양림을 걸으며 꽃자왈의 생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초등학교 학생 17명(3학년 10, 4학년 7)과 강성호·김혜린 교사가 3일 교래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를 찾았다.

이날 탐방에는 김난희 숲연구소 꿈지락 대표가 동행하며 ▷진실의 나무 ▷화합의 길 ▷추억의 그네 ▷림보와 '소원을 말해봐' 나무 ▷보물 찾기 ▷새들에게 모빌 만들어주기 ▷자연폭죽 터뜨리기 놀이터를 마련해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 제주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었다.

김난희 대표는 "돌과 나무와 덩굴들이 함께 어우러진 숲을 '꽃자왈'이라고 해요. 숲을 뜻하는 '꽃'과 돌 무더기를 뜻하는 '자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주 고유어예요.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됐는데, 화산

이 분출될 때 나온 용암이 굳어지는 중 갈라지고 쪼개져서 울퉁불퉁한 돌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돌밭 사이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덩굴이 우거진 숲이 만들어진 거예요. '돌밭에 뿌리내린 숲' 그것이 바로 '꽃자왈'이에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꽃자왈은 농사를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꽃자왈에 있는 나무를 베어 땔감이나 숯으로 사용해서 나무 밑동 밖에 남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꽃자왈을 보호하자고 하게 되서 꽃자왈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기로 약속을

한거예요. 그랬더니 나무 밑동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새싹·줄기가 자랐어요. 이런 줄기를 맹아라고 부르고 꽃자왈을 걷다보면 맹아가 나온 나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거예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숲길을 걸으며 나무를 만지고, 솔방울을 던지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독초인 천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가까워졌다. 숲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가치가 있듯이 아이들마다 다 가치가 있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배워갔다. 아이들은 함께 즐거운 놀이에 흠뻑 빠졌고, 숲에 얽힌 역사를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준서 학생은 "학교·학원생활을 하면서 학업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는데 숲을 걸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학습을 하니까 머리에 쪽쪽 들어오고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들려줬다.

원대경·김준엽 학생은 "뱃줄 같이 보이는 나무 줄기들의 영긴 모습은 열대우림을 연상시킨다"며 "타잔과 치타가 덩굴식물을 타고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맑아져서 좋았고,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희영·강주연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솔방울 사이에 팔배나무 열매를 넣어서 새들에게 먹이 주는 모빌 만들거였다"면서 "새들이 우리가 남긴 먹이를 먹으려고 날아왔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소감을 전했다.

김혜린 교사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받으면 아이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숲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4일 남녕고등학교 한 학생이 이날 배부된 수능 성적표를 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어제 수능 성적표 배부... 눈치싸움 시작 대학별 체크후 정시 전략 세워야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
모집 인원 고려해 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이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과 전년 대비 모집 인원 등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수능 성적표 배부... 희비 교차= 지난달 14일 치러진 수능 성적표가 4일 수험생에게 일제히 배부됐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남녕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를 통해 성적표가 전달됐다.

긴장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을 확인한 학생들의 얼굴에선 희비가 교차했다. 학생들은 가채점보다 오른 성적에 웃음 짓는가 하면, 기대에 못 미친 성적에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3학년 6반 교실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수시 전형에 지원했는데 최저 등급을 맞춰서 다행"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다른 영역 성적은 가채점에서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시험을 볼 때도 어렵게 느꼈던 사회탐구 영역 성적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적 맞춰 유불리 따져야"=성적표가 나왔으니 대입 전략도 그에 맞춰 세워야 한다. 수시 전형 위주로 준비하던 학생들도 오는 10일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에 따라 정시 원서 접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사전 대비는 필수다.

정시모집에선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한 예로 A대학교 자연대학의 탐구영역 반영 비율이 30%이고, B대학교 자연대학이 같은 영역을 15% 반영한다면, 탐구영역 성적이 좋은 수험생은 B학교보다 A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학과별 정시 모집 인원과 모집 군 변화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김석준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는 "다군은 가/나 군에 비해 모집 대학 수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합격컷(대학 합격을 위한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된다"며 "모집 인원이 늘거나 줄어든 것도 합격컷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전형 원서접수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다.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전화(710-0298)로 상담을 신청하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제주도민 하루 10명꼴 암 환자 등록

지난해만 3806명... 2010년 2469명보다 54% 늘어
암 환자 총 2만4803명... 갑상샘-위-대장-유방 순

지난해 제주도민 가운데 하루평균 10.4명이 신규 암환자로 등록했다. 특히 8년 전인 2010년에 견줘 신규 등록환자가 급증하며 식생활 및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신규 중증암 등록환자는 3806명이다. 이는 2010년 2469명에 비해 1377명이 많은 수치로 증가율은 54%에 이른다. 암유형

별로는 대장암 419명(268명, 이하 2010년 신규등록환자 생략), 위암 342명(265명), 폐암 315명(193명), 갑상샘암 299명(345명), 유방암 265명(117명), 간암 252명(252명) 등의 순이다. 체장암이 2010년 33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전립선암도 118명에서 작년 276명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담낭암, 피부암, 신장암, 방광암 등도 8년 새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민 가운데 등

록 암환자는 2만4803명으로 전국 217만526명의 1.14%를 차지했다. 암 유형별로는 갑상샘암 4402명, 위암 2990명, 대장암 2826명, 유방암 2331명, 전립선암 1289명, 폐암 1027명, 간암 970명 등의 순으로 많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제주도는 8.8%로 전국평균 7.8%에 견줘 1.0%p 높다. 암유형별로 전 국평균 증감률보다 높은 암은 위암 8.0%(5.9%, 전국평균 이하 생략), 대장암 9.2%(6.5%), 피부암 15.2%(12.7%) 요관암 23.5%(13.7%) 신우암 19.0%(12.2%)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건설업자에 2억 뇌물수수 전 공기업 임원 징역 9년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 공기업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제주LNG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제주도 연동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명문도시,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스포노믹스(Sports + Economics) 육성사업으로
글로벌(Global + Local) 축구도시를 구현합니다.

서귀포시와 함께하는 한중일 유소년 축구교류전 | 일시: 12월 9일(월) ~ 13일(금) | 장소: 걸매축구장 A, B

주최 | 서귀포시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서귀포시축구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의 | 064. 760. 3616